

플라톤의 『파이드로스』에서 흰 말과 검은 말*

강성훈**

초록 『파이드로스』에서 마부와 흰 말과 검은 말의 비유는 전통적으로 『국가』의 이성 부분, 기개 부분, 욕구 부분에 상응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전통은 고대 플라톤주의자들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그들은 기본적으로 이성과 욕망의 대비라는 틀을 가지고 플라톤을 해석했고, 마부와 두 말을 영혼의 세 부분과 동일시한 전통도 이러한 해석 틀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텍스트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된 것들에 주목하면, 영혼 삼분설과 마부와 두 말의 비유 사이에는 유사점보다 불일치의 요소가 더 많다. 또한 플라톤이 양자를 동일시하지 않으려 했다고 짐작할 만한 요소들도 적지 않다. 플라톤이 마부와 두 말의 비유로 무엇을 나타내려고 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가 등장하는 소크라테스의 두 번째 연설이 그의 첫 번째 연설을 교정하는 ‘다시 부르는 노래’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연설은 바로 이성과 욕망을 대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마부와 두 말의 비유는 바로 그러한 대비를 대치하는 것이다. 이성과 욕망은 모두 적절한 동기를 만들어 낼 수도 있고 부적절한 동기를 만들어 낼 수도 있는데, 흰 말은 적절한 동기를 만들어 내는 아이도스 성향을 대변하며, 검은 말은 부적절한 동기를 만들어 내는 휘브리스 성향을 대변한다.

주제어 흰 말, 검은 말, 내적 갈등, 아이도스, 휘브리스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지원한 집담회의 성과임.
투고 논문이 난삽하고 장황하다는 심사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그에 따라 『파이드로스』 외의 다른 대화편들에 대한 논의를 덜어내고 소크라테스의 두 번째 연설에 대한 요약을 추가하여, 전체 서술은 간결하게 하면서 논의를 보강하였다. 심사위원들께 난삽한 논문을 읽게 만든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함께 감사를 드린다. 『파이드로스』 편을 주제로 하는 기획에 참여하여 다양한 이슈에 대해 함께 토론했던 동료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 서울대학교 철학과 부교수

1. 들어가는 말

『파이드로스』에서 소크라테스가 영혼을 두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와 마부의 결합물에 비유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보통 이 비유가 나타내는 영혼의 성격이 『국가』의 영혼 삼분설과 실질적으로 같은 것이어서, 마부와 흰 말과 검은 말이 각각 『국가』에서의 이성 부분, 기개 부분, 욕구 부분에 상응한다고 이야기된다. 『파이드로스』의 비유에서 『국가』의 영혼 삼분설과 잘 어울리지 않는 요소들이 있긴 하지만, 절대다수의 연구자는 마부와 두 말이 『국가』에서 논의되는 영혼의 세 부분과 상응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 틀 안에서 어떤 세부적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정도에 그친다. 『파이드로스』의 마부와 두 말과 『국가』의 영혼의 세 부분 사이의 상응 관계를 부정하는 소수 연구자도 대개는, 양자의 성격이 전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지만 그 차이가 단순히 세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서 흰 말과 검은 말을 각각 기개 부분과 욕구 부분으로 간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이다.¹

사실 『파이드로스』에서 소크라테스가 영혼을 두 마리의 말과 마부의

1 이에 해당하는 예로 Ronna Burger (1980), *Plato's Phaedrus: A Defense of a Philosophic Art of Writing*, Alabama: University of Alabama Press, p. 141, n. 53; Lloyd Gerson (1987), "A Note on Tripartition and Immortality in Plato", *Apeiron* 20, pp. 91-94; Elizabeth S. Belfiore (2006), "Dancing with the Gods: The Myths of the Chariot in Plato's *Phaedrus*", *American Journal of Philology* 127(2), pp. 190-191; Frisbee Sheffield (2012), "Erös before and after Tripartition", *Plato and the Divided Self* (Ed. by Rachel Barney, Tad Brennan, and Charles Britta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23-224; Li Fan (2016), *Love and Madness in Plato's Phaedrus*, University of St. Andrews Ph.D Thesis, pp. 80-90 등이 있다. 양자의 상응 관계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로는 David A. White (1993), *Rhetoric and Reality in Plato's Phaedrus*, Albany: SUNY Press, pp. 89-93; 151-156과 Robert Zaborowski (2018), "Plato's *Phaedrus* 253e5-255a1 Revisited: A Reappraisal of Plato's View on the Soul", *Organon* 50, pp. 185-193이 있다. 화이트와 자보로우스키의 견해는 서로 매우 다르지만, 각각 부분적으로 필자가 제시할 입장과 유사한 점이 있다. 하지만 지면 관계상 이들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다.

결합물로 비유하는 것을 보고 오늘날의 독자가 『국가』의 영혼 삼분설을 떠올리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파이드로스』의 논의 중에 『국가』의 영혼 삼분설과 어울리지 않는 점들을 발견해도, 세부적인 조정을 통해서 두 대화편 사이의 부조화를 해소하려고 시도하는 일은 강력한 해석적 동기를 갖는다. 하지만 그런 해석을 찾으려는 시도들이 계속 실패한다면, 애초에 그런 시도 자체가 길을 잘못 들었던 것이 아닐지 의심해 볼 수도 있겠다. 오늘날의 독자가 『파이드로스』를 읽을 때 마부와 두 마리의 말을 『국가』에서의 이성 부분, 기개 부분, 욕구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유는 단순히 두 대화편에서 영혼의 세 부분, 혹은 세 요소가 언급되었다는 사실을 넘어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플라톤이 해석되어 온 방식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을지 모른다. 마부와 두 말을 이성 부분, 기개 부분, 욕구 부분과 동일시하는 전통은 회의주의 아카데미가 몰락하고 플라톤주의가 부활했던 시기에 확립된 것이었고,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플라톤 해석의 틀에서는 『국가』의 영혼론과 『파이드로스』의 영혼에 대한 비유 사이에 특별히 부조화스러운 점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두 마리 말과 마부가 바로 『국가』에서의 영혼의 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을 수 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들의 해석 틀이 받아들여지다 보니 그들의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게 된 오늘날에도 그런 해석이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에 비해 『파이드로스』가 쓰일 당시의 독자들에게는 두 마리 말과 마부를 『국가』의 영혼 삼분설과 연결 짓는 것이 오늘날의 독자들에게만큼 당연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플라톤 저작들의 저술 시기에 관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해석을 취할 경우, 당대 독자들이 『파이드로스』의 논의와 밀접하게 연관 지을 수 있는 대화편들은 『파이돈』, 『국가』, 『향연』 정도이다. 『향연』에는 『파이드로스』와 비슷하게 천상의 에로스와 범속의 에로스 구별이 등장하지만² 영혼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다. 『파이돈』에는 영혼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없고 영혼과 육체의 대립에 대한 논의가 있다. 『국가』에서는

영혼 삼분설이 제시되지만 10권에 가서 영혼 부분에 대한 논의는 육화된 영혼에만 적용됨을 시사하는 언급이 등장한다.³ 『파이드로스』에서 두 마리 말과 마부에 대한 논의는 육화되기 이전의 영혼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국가』의 영혼 삼분설에서 논의되는 영혼 내의 갈등은 『파이드로스』에서 마부나 흰 말과 검은 말 사이의 갈등보다 『파이돈』에서 영혼과 육체 사이의 갈등과 성격이 더 비슷하다.⁴ 한마디로 말해서, 플라톤의 대표적인 중기 대화편들인 이 네 대화편에서 이루어진 영혼에 대한 묘사는 각각 유사점과 차이점이 존재하며, 당대 독자들이 그중 『국가』의 영혼 삼분설과 『파이드로스』의 두 말과 마부 사이의 유사성에 특권적 지위를 부여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필자가 제안하려고 하는 것처럼, 만약 저자인 플라톤이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국가』의 영혼 삼분설과는 다른 방식으로 영혼을 마부와 두 마리 말에 비유했다고 해보자. 이 경우 단순히 영혼이 세 요소로 나뉘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이것을 『국가』의 영혼 삼분설과 동일시하려는 독자들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한 독자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플라톤은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었을까? 『파이드로스』의 등장인물인 소크라테스가 대놓고 지

2 이 구별은 파우사니아스의 연설에서 등장하며(180d-181b), 에픽시마코스의 연설에서도 반복된다(186a-188d). 거칠게 말하자면, 『파이드로스』에서 소크라테스의 첫 번째 연설에서 묘사되는 에로스는 범속의 에로스, 두 번째 연설에서 묘사되는 에로스는 천상의 에로스와 대략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3 『국가』 10권에서 소크라테스가 하는 이야기는 다소 모호하다. 그는 육화된 영혼이 훼손된 상태이며, 영혼의 본성은 이와 다를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611b-d), 영혼의 본성이 단일한 형태(eidos)인지 여러 형태인지는 열린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한다(612a).

4 『파이돈』에서 소크라테스는 몸에 대한 사랑을 재물 사랑이나 명예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며(68c), 영혼과 육체의 대립에 대해 논의할 때 열과 갈등이 있는 사람이 마시지 않는 경우와(94b) 분노를 참는 오뒤세우스의 경우(94d-e)를 예로 든다. 『국가』 4권에서 소크라테스는 이성 부분과 욕구 부분을 나누는 논증과 이성 부분과 기개 부분을 나누는 논증에서 바로 이 예들을 사용하며, 『국가』 9권에서는 영혼의 세 부분을 각각 지혜를 사랑하는 부분, 명예를 사랑하는 부분, 돈을 사랑하는 부분으로 규정한다.

금의 비유는 『국가』에서 제시된 영혼 삼분설과는 다른 성격의 비유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도록 만들 수는 없다. 이것은 마치 『국가』의 등장인물 소크라테스가 자신이 이야기하는 영혼의 부분들 사이의 대립이 『파이돈』에서 영혼과 육체의 대립으로 간주했던 것과 비슷한 성격이라는 이야기를 하도록 만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⁵ 저자인 플라톤이 사용할 수 있었던 방법은 이러저러한 드라마적 장치를 통해서 독자에게 그런 오해를 피할 단서들을 제공하는 정도였을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흰 말과 검은 말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소크라테스의 두 번째 연설에는 (『국가』의 영혼 삼분설과 마부와 두 말 비유 사이의 불일치 요소에 더해) 그러한 단서들도 충분히 많이 있다.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⁶ 2000년 역사의 편견이 없었다면 그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만드는 단서들이 일방적으로 무시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국가』의 영혼 삼분설과 『파이드로스』의 비유를 연결 짓는 것이 오프라면, 이 오해는 사소한 것이 아니다. 플라톤에 대한 대중적 인상은, 그가 이성과 욕망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이성을 우위에 두며 욕망을 억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파이드로스』의 검은 말이 『국가』의 욕구 부분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대중적 인상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파이드로스』의 비유에서 검은 말에는 명시적으로 ‘나쁘다’는 수식어가 붙어 있으며(246b, 253d 이하), 실제로 『파이드로스』에서 검은 말은 마부에

-
- 5 플라톤의 후기 대화편들에서는 등장인물 소크라테스가 다른 대화편을 직접 언급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화편들의 드라마적 세팅 전체가 서로 연결되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중기 대화편들까지는 이런 식으로 구성된 대화편들이 없다.
- 6 필자 자신도 비교적 최근까지 이러한 ‘오해’를 하고 있었다. 강성훈(2005), 「『국가』 4권에 서 영혼의 세 부분」, 『서양고전학연구』 23, p. 63, n. 47이나 강성훈(2013), 「플라톤의 영혼론」, 『서양고대철학 1』(강철웅 외), 도서출판 길, p. 356 등에서 필자는 『국가』의 영혼 모델과 『파이드로스』의 영혼 모델이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는 정도로 이야기했었다. 『파이드로스』에 대한 본격적 연구를 통해 필자는 양자의 차이가 미묘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본 논문은 어떤 의미에서 필자의 생각이 왜 변했는지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의해 억압되어야 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사실 고대 플라톤주의자들이 검은 말과 욕구 부분을 동일시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이유도 기본적으로 그들이 이성과 욕망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해석 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애초에 욕구 부분의 긍정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욕구 부분이 영혼의 나쁜 부분이라는 함축을 갖게 되는 이러한 동일시가 그들에게는 특별한 문제 거리가 아니었다.

2장에서 우리는 고대 플라톤주의자들의 해석을 간단히 소개할 것이다. 3장에서는 소크라테스의 두 번째 연설을 요약한 후에(3.1), 마부와 두 말의 비유와 『국가』의 영혼 삼분설 사이의 불일치 요소들에 대해 논의하고(3.2), 또 양자를 일치시키지 않으려는 플라톤의 의도를 짐작할 단서들을 소개할 것이다(3.3). 4장에서 마부와 두 말이 각각 어떤 것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필자의 해석을 제시하고, 5장에서 결론을 대신하여 필자의 해석이 『파이드로스』의 에로스 논의에서 갖는 함축을 간단히 언급할 것이다.

2. 고대 플라톤주의자들의 해석

『국가』의 영혼의 세 부분과 마부와 두 말을 동일시하는 전통은 중간 시기 플라톤주의에서 확립되었다. ‘중간 시기 플라톤주의’(Middle Platonism)라는 명칭은 기원전 1세기에 회의주의 아카데미가 몰락한 이후 서기 3세기에 플라톤주의자들이 플로티노스의 사상을 중심으로 통합된 신플라톤주의가 등장하기 이전에 활동했던 플라톤주의자들의 사상을 뭉뚱그려서 부르는 명칭이기 때문에, 중간 시기 플라톤주의의 사상이 어떤 것이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⁷ 하지만 이 시기 플라톤주의자들에게서 공통으로 드

7 중간 시기 플라톤주의자들의 성격과 그들의 사상에 관해서는 George Boys-Stones (2018), *Platonist Philosophy 80 BC to AD 25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를 참조하라.

러나는 특성은 이성적인 것과 비이성적인 것의 대립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다는 점이다. 플루타르코스는 『플라톤 철학의 물음들』 중 9번째 물음에서 이성이 마부에 비유되고 두 말이 기개 부분과 욕구 부분에 비유된 것이 명백하다고 이야기한다(1008c). 그런데 여기에서 그는 『국가』에서 이성 부분이 기개 부분과 욕구 부분의 중간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 비유를 끌어들이는 것일 따름이다. 플루타르코스는 이 비유 자체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고, 영혼의 부분들에 대한 논의에서도 이성 부분과 나머지 부분들 사이의 대립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기개 부분과 욕구 부분의 대립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갈레노스는 『히포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사상에 관하여』의 여러 구절에서 별다른 논의 없이 영혼의 세 부분과 마부와 두 말을 동일시한다(5권 5.34, 6권 1.17-19 등).⁸ 그런데 갈레노스 역시 이성 부분과 나머지 부분들 사이의 갈등에만 주목할 따름이며, 정작 『파이드로스』에서 이 비유가 어떻게 제시되었는지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이성과 분노(thumos)의 대립에 대해 길게 논의하면서 이것을 마부와 말의 대립으로 이야기한다(3권 3.3-22).⁹ 『파이드로스』의 비유에서 마부는 흰 말과는 대립하지 않고 검은 말과 대립한다. 플루타르코스나 갈레노스가 이 점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들은 두 말을 기개 부분과 욕구 부분으로 간주하면서 이성 부분과 기개 부분의 대립을 마부와 말의 대립으로 볼 수 없었을 것이다.

8 갈레노스는 자신을 플라톤주의자로 규정한 적이 없다. 그래서 그의 생각을 중간 시기 플라톤주의의 입장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갈레노스는 플라톤의 사상이 참이라고 생각했으며, 어쨌거나 그의 논의로부터 당대 플라톤주의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엿볼 수 있겠다.

9 여기에서 갈레노스는 스토아학과 크뤼시포스의 감정에 대한 견해와 대결하고 있으므로 이성과 분노의 갈등에 대해 길게 논의하는 것이다. 마부와 말의 대립을 예로 드는 것도 그것이 크뤼시포스의 입장과 대비하기에 유용하기 때문일 따름이다. 갈레노스는 6권 2.4에서 영혼의 세 부분을 마부와 두 말에 비유하는 것보다 『국가』 9권에서처럼 사람과 사자와 머리 여럿 달린 짐승에 비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이야기한다.

마부와 말들을 언급하는 플루타르코스나 갈레노스가 『파이드로스』의 구체적 내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데 비해, 알키노오스는 『플라톤 사상 강의』(*Didaskalikos*) 25.7에서 마부와 두 말을 언급하지는 않으면서 명백히 『파이드로스』에서의 비유에 근거한 독특한 주장을 한다. 그는 신들의 영혼도 판단 부분(to kritikon) 혹은 인식 부분(to gnōstikon)과 추동 부분(to hormētikon) 혹은 고무 부분(to parastatikon), 그리고 자기화 부분(to oikeiōtikon)을 가지며, 인간의 영혼에도 이 능력들이 있지만, 인간의 영혼이 육화되면서 자기화 능력은 욕구 부분(to epithumētikon)이 되고, 추동 능력은 기개 부분(to thumoeides)이 된다고 이야기한다. 『파이돈』에서 영혼의 단순성이 불사의 근거로 제시되고(78b-80b) 『국가』 10권에도 비슷한 취지의 논의(611a-612a)가 있으며, 『티마이오스』에서는 영혼의 불사적 원리가 육체와 결합하면서 기개 부분과 욕구 부분이 추가된다고 이야기되는 것(69d-71d)을 고려하면, 신들의 영혼이나 육화되지 않은 인간 영혼이 부분을 갖는다는 것은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다. 알키노오스의 주장은 『파이드로스』에서 신들의 영혼과 육화되기 이전의 인간 영혼도 마부와 말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야기되는 것(246a-b)에 관한 나름의 해석일 것이다.¹⁰ 이런 점에서 알키노

10 알키노오스는 이 주장에 아무런 설명을 덧붙이지 않기 때문에 그가 어떤 생각에서 이런 해석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그가 당대 플라톤주의자들의 전통을 따라서 일단 인간 영혼의 두 말을 기개 부분과 욕구 부분으로 놓고, 당대의 철학적 지형도 내에서 신들의 영혼에서 그에 상응할 수 있는 것을 찾았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따름이다. ‘판단 부분’, ‘추동 부분’, ‘자기화 부분’ 등의 표현은 스토아학파의 용어들에서 차용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중간 시기 플라톤주의자들은 스토아학파 등의 체계적 철학론에 대항해서 플라톤주의를 체계화하려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다른 학파의 용어나 사상을 많이 차용했던 것 같다.

이와 관련해서 갈레노스나 알키노오스와 대략 동시대였다고 할 수 있는 테르툴리아누스의 흥미로운 보고도 참조할 수 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영혼론』(*De Anima*)에서 영혼은 단일하고 단순하기에 불사라는 주장, 즉 우리에게서 『파이돈』을 통해서 잘 알려진 주장을 한다. 그런데 그는 기존의 철학자들이 영혼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었다고 하면서, “플라톤은 영혼을 두 부분으로, 제논은 세 부분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섯 부분으로, (...) 크뤼시포스는 여덟 부분으로, (...) 포세이도니오스는 열일곱 부분으로 나누었다”고

오스는 플루타르코스나 갈레노스보다는 『파이드로스』의 비유에서 실제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에 어느 정도 관심을 두었다고 할 수 있지만, 영혼의 부분들 사이의 상호관계와 관련해서는 그도 당대의 다른 플라톤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이성 부분과 다른 부분들 사이의 갈등에 관해서만 이야기한다(24.2-4).

이성적인 것과 비이성적인 것의 대립을 중심으로 플라톤을 해석하는 경향은 신플라톤주의에서 더 강화되었다. 신플라톤주의자들은 관조의 덕을 제외한 나머지 덕들은 관조와 정화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것 정도로만 여겼으며, 그러다 보니 『국가』의 영혼 삼분설은 그 자체로는 특별한 관심을 끌지도 못했다. 플로티노스는 『덕들에 관하여』¹¹에서 기개(thumos)나 욕구(epithumia)를 가능한 한 철저히 제거하는 것을 통해서 영혼을 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5.6-22). 여기에서 플로티노스는 명백

이야기한다(14.1-2). 플라톤이 영혼을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는 이야기는 이성적인 부분과 비이성적인 부분의 대비를 중요시하던 당대 플라톤주의자들의 사상을 고려하면 특별히 놀랄 일은 아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영혼을 다섯 부분으로 나누었다거나 크뤼시포스가 영혼을 여덟 부분으로 나누었다는 이야기 등은 매우 낯설게 여겨질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고대 철학에서 영혼의 부분에 대한 논의가 플라톤의 영혼 삼분설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고대에는 영혼의 부분(meros)과 영혼의 능력의 유형(eidos)을 구분하지 않고 논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영혼을 다섯 부분으로 나누었다는 이야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론』 2권 3장 414a31-32에서 영혼의 다섯 능력이 구분된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테르툴리아누스는 저런 보고를 하고서 끝이 어 이것들은 사실 영혼의 부분이라기보다 힘(vis)이나 능력(efficacia)이나 기능(opera)이라고 이야기한다(14.3).

비슷한 맥락에서, 중간 시기 플라톤주의자들이 영혼의 부분들의 성격과 개수에 관해 이야기한 것들은 사실 매우 다양하고 혼란스럽다. 예컨대, 영혼의 세 부분을 이야기하더라도 영양 섭취 부분(to threptikon), 감각 부분(to aisthêtikon), 이성 부분(to logistikon)을 이야기하는 이도 있고(필론), 감각(aisthêsis)과 현명함(phronêsis)과 지성(nous)을 이야기하는 이도 있다(튀레의 막시무스). 우리는 지금 『국가』의 영혼 삼분설과 『파이드로스』의 마부와 말들 비유의 관계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기에, 영혼의 부분들의 성격과 개수에 관한 고대 플라톤주의자들의 다른 주장들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을 따름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Boy-Stones (2018), pp. 250-287을 참조하라.

11 『엔네아데스』 1.2.

히 『국가』 4권의 논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지만,¹² 그는 기개 부분과 욕구 부분을 구별해서 언급하지도 않고 뭉뚱그려서 단수로 ‘비이성적 부분’(to alogon)이나 ‘열등한 부분’(to kheiron)이라고 부른다(5.23; 5.28). 필자가 아는 한, 플로티노스가 『파이드로스』의 마부와 두 말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으나,¹³ 그는 어차피 영혼의 비이성적 부분들에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영혼 삼분설과 이 비유 사이에 부조화가 있는지에 관해서도 별 관심이 없었다고 할 수 있겠다.

『파이드로스』에 대한 신플라톤주의 주석 중 오늘날 남아 있는 유일한 것은 헤르메이아스의 주석이며, 마부와 말들의 비유에 대해 논의할 때 그가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은 인간의 영혼이 육화되기 이전에도 마부와 두 말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논의이다. 그는 『티마이오스』에서 테미우르고스가 있음과 같음과 다름을 섞어서 영혼을 제작했다고 이야기되는 것(35a-b)을 끌어들어서, 인간 영혼의 최초 상태에서 마부는 있음의 힘(혹은 능력, dunamis), 훌륭한 말은 같음의 힘, 열등한 말은 다름의 힘에 상응한다고 주장한다(128.24-26). 하지만 인간의 영혼이 하강하면서 마부와 두 마리 말에 상응하는 것들이 하강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한다(130.8-23).¹⁴ 영혼 하강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영혼의 육화가 이루어지며, 이때 비이성적인 것(to alogon)이 영혼에 엮이게 되고(prosuphainesthai), 그에 따라 마부는 믿음을

12 그는 정의가 ‘자신의 일을 함’(oikeiopragia)이라면 이것이 여러 부분의 존재를 전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서, 진정한 정의는 하나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는 활동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6.20-28).

13 『엔네아데스』 2.9.2에는 영혼의 한 부분이 지성적 영역을 지향하고, 다른 부분은 아래를, 중간 부분은 중간을 지향한다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부분은 『파이드로스』 248a-c를 참조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실 신플라톤주의자들이 영혼의 부분들의 성격이나 개수에 관해 논의하는 것들도 매우 혼란스러운데, 주석 10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이유에서 본 논문에서는 관련 논의를 생략한다.

14 각 단계에서 상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헤르메이아스의 논의는 그 자체로 흥미롭지만, 텍스트적 전거가 전혀 없이 순수한 상상에 기반한 논의여서 여기에서는 소개하지 않는다.

따르고(kata tēn doxan), 더 나은 말은 기개(thumos), 못난 말은 욕구(epithumia)가 된다고 이야기한다(130.25-32; 201.26-202.1).

고대 플라톤주의자 중에서 『파이드로스』에 등장하는 마부와 두 말의 비유의 구체적 내용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두는 이들은, 적어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한에서는, 알키노오스와 헤르메이아스뿐이다. 둘은 모두 육화되기 이전의 영혼과 육화된 이후의 영혼을 구분하며, 육화된 이후의 영혼에서 두 말을 기개 부분 혹은 기개의 능력과 욕구 부분 혹은 욕구의 능력과 동일시한다. 다만 헤르메이아스는 육화되기 이전의 영혼에서는 두 말이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이었던 것으로 해석하는 반면, 알키노오스는 육화되기 이전의 능력과 이후의 능력 사이에 어느 정도의 연속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차이는 이성적인 것과 비이성적인 것의 대립을 중심으로 두고 생각하는 중간 시기 플라톤주의와 육체로부터의 완전한 정화를 목표로 하는 신플라톤주의 사이의 차이에 상응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듯하다.

정리해 보자. 『파이드로스』의 마부와 두 말을 『국가』의 이성 부분, 기개 부분, 욕구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전통은 이성적인 것과 비이성적인 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해석의 틀을 배경으로 확립되었다. 이러한 해석의 틀은 중간 시기 플라톤주의부터 시작하여 신플라톤주의에서는 더 강화되었다. 그러다 보니 고대 플라톤주의자들은 『국가』의 영혼 삼분설이나 『파이드로스』의 비유를, 구체적인 세부 내용들은 무시한 채 단순히 이성 부분과 비이성적 부분들 사이의 구분인 것으로 해석하거나, 그러한 해석 틀을 가지고 구체적인 세부 내용들의 불일치를 텍스트와 상관없는 기발한 상상력을 통해 극복하려고 했다.

3. 『국가』의 영혼 삼분설과 『파이드로스』의 마부와 말들 비유

신플라톤주의가 득세하고 나서 그들의 해석이 유럽을 지배하며 플라톤에 대한 대중적 인상을 만들고 강화해 왔지만, 고전학이 학문 분과로 성립한 19세기 이후에도 텍스트 전거를 존중하지 않는 해석적 전통이 유지될 수는 없었다. 더구나 신플라톤주의식의 ‘과도한’ 형이상학이 힘을 잃게 된 19세기 말부터는 신플라톤주의적 해석이 극복대상이 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신플라톤주의적 해석의 영향을 극복하면서 도달하게 된 플라톤 해석은 여전히 중간 시기 플라톤주의, 특히 플루타르코스식 해석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던 것 같다. 플라톤을 이성적인 것과 비이성적인 것의 대립이라는 틀에서 해석하는 경향은, 도덕 심리학이 플라톤 해석에서 중심 주제로 부상하게 된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극복되기 시작한다.

고대 플라톤주의자들이 영혼 삼분설과 마부와 말들의 비유 사이의 불일치 요소들에 주목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마부와 말들의 비유 자체에 대한 그들의 무관심보다도, 그들이 영혼 삼분설의 세부적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노력을 크게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서두에서 우리는 양자의 동일시가 욕구 부분이 영혼의 나쁜 부분이라는 함축을 갖는다고 지적했는데, 현대에도 욕구 부분은 근본적으로 ‘나쁜’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도 교육도 불가능하고 억압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없지 않다.¹⁵ 영혼 삼분설과 마부와 말들의 비유 사이의 불일치에 대

15 한 심사자는 플라톤이 욕구 부분을 나쁜 것으로 설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당연하기에 이에 반대되는 입장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를 만들기 위한 문제가 아닌지 우려를 표하였다. 물론 플라톤 연구자 중에는 욕구 부분을 부정적으로만 평가하는 연구자가 거의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필자의 경험으로는 철학 연구자 일반, 더 나아가 인문학, 교육학, 정치학 연구자 일반 등으로 범위를 확장하면 이런 생각의 연구자들을 찾기가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양자가 각각 어떤 내용인지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을 위해 다행스러운 것은, 20세기 후반 이후 『국가』의 영혼 삼분설에 관한 연구가 폭발적으로 행해졌고, 그 결과 영혼 삼분설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적어도 큰 틀에서는 표준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영혼의 세 부분은 모두 욕구를 가지며, 세 부분이 모두 믿음이나 믿음과 유사한 인지적 상태를 갖는다. 영혼의 각 부분은 적절한 교육을 통해서 더 나은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더 못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세 부분은 조화와 합의를 이룰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¹⁶ 이제 『국가』의 영혼 삼분설에 대해서는 이러한 표준적 해석이 승인된 것으로 하고, 『파이드로스』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확인해 보자.

3.1. 『파이드로스』에서 소크라테스의 두 번째 연설

『파이드로스』에서 소크라테스는 두 연설을 하며, 거칠게 말해서 첫 번째 연설은 에로스 비난 연설, 두 번째 연설은 에로스 찬양 연설이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연설에서 소크라테스는 광기(*mania*)와 분별(*sôphrosunê*)¹⁷

16 이러한 해석이 표준적 해석이 되도록 하는 데 중요하게 기여한 연구들로 John Cooper (1984), "Plato's Theory of Human Motivation", *Reason and Emotion* (Ed. by John Cooper, 1999), pp. 118-137; Charles H. Kahn (1987), "Plato's Theory of Desire", *Review of Metaphysics* 41, pp. 77-103; Hendrik Lorenz (2006), *The Brute Withi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9-110 등이 있다. 관련 국내 연구로는 김영균(2004), 「『국가』 편에서 혼의 조화와 이성의 지배에 대한 플라톤의 견해」, 『철학』 79, pp. 81-105; 강성훈(2005), pp. 29-69; 강성훈(2013), pp. 341-365; 강성훈(2016), 「플라톤의 『국가』에서 세 종류의 사람들과 영혼의 세 부분」, 『서양고전학연구』 55-2, pp. 29-56; 강성훈(2024), 「플라톤과 욕망의 다면성」, 『욕망에 대하여』(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엮음). 사회평론아카데미, pp. 339-370 등을 참고할 수 있다.

17 'sôphrosunê'의 번역어를 택하기는 항상 어렵다. '절제'나 '분별'이나 '제정신임' 정도를 택할 수 있겠는데, 『파이드로스』에서 이 용어는 이 세 가지 계기가 구별하기 어렵게 혼합되어 사용된다. 그나마 '분별'이 이 세 가지 계기를 포괄하기에 낫다고 생각해서 '분별'을

을 대비시키며, 에로스는 광기의 일종이라고 주장한다. 두 번째 연설은 첫 번째 연설의 논의를 이어받아서 그것을 교정하는 ‘다시 부르는 노래’(palinōidia)로 묘사되며, 광기와 분별을 대비시켜서 광기를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이야기로 시작한다(244a). 소크라테스는 신으로부터 유래하는 광기들은 좋은 것들을 신의 선물로 제공한다면서 이것들에 대한 분류작업을 한다(244b-245b). 이후의 논의는 신으로부터 유래하는 광기로서의 에로스가 얼마나 좋은 것들을 인간에게 제공하는지에 대한 논의이다.

에로스가 인간에게 좋은 것을 제공한다는 논의를 편의상 다음의 부분들로 나누고, 각 부분에서 소크라테스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

A. 영혼 불사 증명(245c-e): 영혼은 ‘자기 자신을 움직이는 것’이다. 다른 것에 의해 움직이는 것은 정지할 수 있지만, 자신에 의해 움직이는 것은 운동의 원인과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움직인다.

B. 영혼의 형태(246a-d): 영혼의 형태(idea)는 ‘한 명에 매인 날개 달린 말들과 마부가 결합된 능력(sumphutos dunamis)’에 비유될 수 있다. 신들의 경우는 말들과 마부가 모두 훌륭하지만, 인간은 한 쌍의 말을 모는데 한 마리는 훌륭하고 다른 한 마리는 그 반대이다. 모든 영혼은 영혼 없는 것 전체를 돌보고 천계 전체를 순례한다. 날개가 있는 완전한 영혼이 우주 전체를 관장하며, 날개 깃털이 빠진 영혼은 이동하다가 단단한 것을 만나서 흩으로 된 몸을 취한다.

C. 영혼들의 행렬(246d-247b): 제우스를 필두로 헤스티아를 제외한 11신들을 중심으로 영혼들은 무리를 지어 천계를 순례하는데, 인간의 영혼들은

대표 번역어로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그냥 음차할 것이다. 뒤에 나올 ‘hubris’와 ‘aidōs’도 ‘방종’과 ‘염치’를 대표 번역어로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그냥 음차할 것이다.

나쁜 말 때문에 마부가 어려움을 겪는다.

D. 천계 밖의 ‘참으로 있는 것들’에 대한 관조(247c-e): 천계 바깥에 영혼의 키잡이인 지성(nous)에게만 관조되는 ‘참으로 있는 것들’이 있다. 지성과 순수한 앎에 의해 양육되는 신의 사유(혹은 정신, *dianoia*)나 적합한 것을 받아들이는 데 관심이 있는 모든 영혼의 사유는 이것들을 관조하면서 그것에 의해 양육되고 그것을 즐긴다(*eupathein*).

E. 인간 영혼들의 관조(248a-c): 이러한 관조가 영혼을 들어올리는 날개의 본성을 양육하기 때문에 영혼은 관조에 대한 대단한 열의(*spoudē*)를 갖는다. 하지만 신들과 함께 가장 바깥에서 회전하는 영혼들도 말들로 인해 소란을 겪어서 이것들을 겨우 보고, 다른 영혼들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일부만 본다. 또 다른 영혼들은 서로 다투면서 표면 아래를 돌다가 결국 실재의 관조에 입교하지 못한 채로 떠나서 의견의 양식(*trophē doxastē*)을 취한다.

F. 윤회(248c-249b): 인간의 영혼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땅에 떨어지면, 그들은 관조의 정도에 따라서 철학자부터 참주까지 아홉 종류의 삶을 살게 된다. 땅에 떨어진 영혼들은 보통 10번의 환생을 겪고 다시 하늘로 오르는데, 세 번 연속으로 철학자의 삶을 산 사람은 세 번 만에 다시 하늘로 오른다. 윤회 과정에서 인간이 짐승으로 짐승이 인간으로 환생하기도 하는데, 관조의 경험이 없는 영혼은 인간으로 환생하지 못한다.

G. 상기와 광기(249b-250c): 인간으로 환생한 이는 누구나 희미하게라도 ‘있는 것들’에 대한 기억이 있어서, 이 땅에 있는 그것들의 닳은꼴을 보고 그것들을 상기하는 것이 원리상 가능하다. 하지만 충분한 관조의 경험이 있는 이에게도 상기는 쉽지 않고, 그것들을 보려고 애를 쓰는 과정에서는 인간사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신들림의 상태에 빠진다. 특히 정의나 분별을 비롯해 영혼에 소중한 것들의 모상들은 광채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시각으로 파악되지도 않아서 이것들을 통한 상기는 더욱 어렵다.

H. 아름다움의 상기와 에로스(250c-252b): 아름다움의 모상은 시각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서 엄청난 사랑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아름다움의 이데아를 본 지 너무 오래되었거나 타락한 사람들은 아름다움의 모상인 소년 애인을 보고서 아름다움을 상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중(hubris)과 사귀며 본성에 어긋나게 즐거움을 추구한다. 이에 비해 아름다움의 이데아를 최근에 충분히 본 사람은 일종의 두려움을 느끼며 소년 애인을 신상(agalma)처럼 대하게 된다. 그는 소년 애인으로부터 아름다움의 유출물을 받게 되며, 아름다움의 유출물은 양분이 되어 영혼 날개의 깃털을 자라게 한다. 이제 그는 통증과 환희가 뒤섞인 경험을 하며, 광기에 빠져 가족과 재산과 기존의 규범을 소홀히 하게 된다.

I. 에로스의 방식들(252c-253c): 사랑에 빠진 이들은 제우스, 아레스, 헤라, 아폴론 등 자신이 추종하는 신의 방식에 따라 사랑을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자신도 그 신과 닮게 되고 소년 애인도 그 신과 닮게 만든다.

J. 마부와 두 말의 상호작용과 사랑하는 자가 사랑에 빠지는 방식(253c-254e): 사랑에 빠지는 방식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부와 두 말의 비유가 재개된다. 먼저 좋은 말의 좋음과 나쁜 말의 나쁨에 관한 규정이 이루어진다.¹⁸ 좋은 말은 ‘분별과 엄치를 가지고 명예를 사랑하는 자(timēs erastēs meta sōphrosunēs te kai aidous)’이고 참된 믿음(혹은 진정한 평판, alēthinē doxa)의 동료이며 명령과 이성을 수단으로 몰 수 있다. 나쁜 말은 ‘방종과 허세의 동료(hubreōs kai alazoneias hetairoi)’이며 채찍과 물이 막대를 동원해야 겨우 따른다. 아름다운 소년을 보면 마부가 영혼 전체를 달구는데, 흰 말은 엄치의

18 보통 두 말이 흰 말과 검은 말로 지칭되지만, 흰과 검은 이때 소크라테스가 두 말의 외적 형태에 대해 묘사하는 여러 성질 중 하나일 따름이다. 그 밖에도 여러 외적 형태들, 예컨대 목이 깨끗함과 짧음, 코가 매부리코임과 납작코임, 눈이 검은과 잿빛임 등의 묘사가 추가되기 때문에 ‘흰 말’과 ‘검은 말’이라는 통상적 규정은 사실 그렇게 적절한 규정이 아니다. 두 말의 좋음과 나쁨을 드러내 주는 규정은 외적 형태보다 이들의 품성에 관한 규정이다. 하지만 편의상 본 논문에서는 ‘흰 말’과 ‘검은 말’이라는 통상적 표현을 사용할 것이다.

제재 때문에 자제하지만 검은 말은 성애의 기쁨을 상기시키며 소년에게 다가가려 한다. 마부와 흰 말은 무섭고 불법적인 것으로 끌려간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버티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결국 검은 말을 따르기로 한다. 하지만 소년에게 가까이 가서는 마부의 기억이 아름다움의 본성이 분별과 함께 있던 것을 상기하고는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고삐를 강하게 당기고, 흰 말은 자발적으로 검은 말은 억지로 멈추게 된다. 이때부터 양편은 서로 간의 비난과 마지못한 합의와 강제와 격렬한 싸움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결국, 검은 말이 공포 때문에 방종(hubris)을 멈추고, 사랑하는 자의 영혼이 염치(aidōs)를 가지고 두려워하며 소년을 따른다.

K. 사랑받는 자가 마중사랑에 빠지는 방식(255a-256a): 아름다운 소년은 구매자의 호의에 감동하게 되고, 아름다움의 흐름이 다시 소년에게 와서 그의 영혼의 깃털을 자라게 한다. 소년은 마중사랑을 지니게 되어서 그도 사랑하는 자와 비슷한 일들을 겪고, 그의 영혼 안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벌어진다.

L.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의 삶의 방식(256a-d):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가 지혜를 사랑하는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경우, 그들은 영혼의 악덕이 깃드는 쪽은 종살이를 시키고 덕이 깃드는 쪽은 자유를 누리게 하여 이승에서 복된 삶을 산다. 사후에는 날개를 달고서 인간적인 분별이나 신적 광기가 제공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좋은 것을 얻는다. 반면에 그들이 명예를 사랑하는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경우, 두 사람의 검은 말들은 영혼의 다른 부분, 혹은 요소들이 부주의한 틈을 타서 관계를 맺는다. 이 두 사람은 이후에 신의를 지키며 친구로 지내고, 사후에 날개를 다는 것은 아니지만 날개 달기를 갈구하는 상태에서 육체를 벗어나서 지하 여행 대신에 천계 아래의 여행을 하게 된다.

K. 논의 정리와 기도(256e-257b): 소크라테스는 논의를 마치면서,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우정은 이러한 신적인 것들을 제공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의 우정은 사멸하는 분별(sôphrosunê thnêtê)과 섞여 있는 것

으로서 자유인답지 못함을 제공할 따름이라고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에로스 신에게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연설을 마친다.

3.2. 불일치 요소들

이제 『국가』의 영혼 삼분설에 대한 표준적 해석과 『파이드로스』에서 소크라테스의 두 번째 연설에서 이야기된 것을 바탕으로, 영혼 삼분설과 마부와 두 말의 비유 사이에 어떤 불일치 요소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자. 첫 번째로 눈에 띄는 불일치 요소는 신들과 인간의 영혼을 묘사하면서(B 부분) 육화되지 않은 영혼도 마부와 두 말의 결합으로 이야기되었다는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알키노오스나 헤르메이아스는 육화되지 않은 영혼에서 두 말은 육화된 영혼에서의 두 말과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육화되지 않은 영혼의 두 말이 어떤 것인지와 관련해서 기발한 상상력을 발휘하였다. 필자가 아는 한, 오늘날의 연구자 중에 알키노오스나 헤르메이아스와 비슷한 방식의 해석을 제시한 이는 없다. 또 필자의 생각으로는, 육화되지 않은 영혼이 어떻게 기개 부분과 욕구 부분을 갖는지에 대한 좋은 설명을 제시한 연구자도 없다.

육화되지 않은 영혼의 두 말에 주목하는 연구자들은 보통, 앞에서 언급했던 『파이돈』 78b-80b, 『국가』 611a-612a, 『티마이오스』 69d-71d 등을 고려해서, 육화되지 않은 영혼은 단순성을 가져야 할 텐데, 그러한 영혼이 어떻게 부분들을 가질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¹⁹ 그런데 단순한 영혼이 어떻게

19 보통은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지며 그런 예로 A. W. Price (1989), *Love and Friendship in Plato and Aristotle*, Oxford: Clarendon Press, p. 75; Fred D. Miller Jr. (2009), "The Platonic Soul", *A Companion to Plato* (Ed. by Hugh H. Benson), West Sussex: Wiley-Blackwell, p. 288; 조대호(2012), 「플라톤 철학에서 기억과 영혼」, 『범한철학』 66, p. 73 등이 있다. 문제의 지적을 넘어서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예로는 Martha C. Nussbaum (1986), *The Fragility of Goodness: Luck and Ethics in Greek Tragedy and Philosoph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22-223; Myles Burnyeat

부분을 가질 수 있는지의 문제는 그 자체로 극복 불가능한 어려움을 만들어 내지는 않는다. 주석 10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영혼의 부분이 반드시 실체적 부분일 필요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육화되지 않은 영혼이 단순성을 유지하면서 이러저러한 비실체적 부분들, 혹은 능력들을 갖는다는 주장이 가능한 것이다. 진정으로 어려운 문제는 육화되지 않은 영혼이 어떻게 욕구 부분을 가질 수 있는가이다. 『국가』에서 욕구 부분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신체적 욕구를 갖는 부분이다(436a-b, 580e). 욕구 부분의 모든 욕구가 신체적 욕구로 환원되지는 않을지 몰라도 신체적 욕구가 없는 부분이 욕구 부분이 될 수는 없다.²⁰

검은 말의 분노도 중요한 불일치 요소이다.²¹ 사랑하는 이가 사랑에 빠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영혼의 갈등 상황(I 부분)에서 마부와 흰 말은 검은 말에게 화를 내고 또 검은 말은 이 둘에게 화를 내며 그들이 겁쟁이라고 욕을 하는데, 『국가』의 영혼 삼분설에서 화를 내는 것은 기개 부분의 고유한 특성이다. 『국가』에서 영혼을 나누는 논증을 시작하면서 소크라테스가 던진 질문은 영혼이 동일한 부분으로 배우기도 하고 화도 내고 다양한 신체적 욕구도 갖는지, 아니면 각각의 활동에 고유한 부분이 따로 있는지였다(436a-b). 이성 부분이나 기개 부분이나 욕구 부분이 모두 화를 낼 수 있다면 『국가』에서와 같은 영혼 삼분설은 성립하지 않는다.

(2012), "The Passion of Reason in Plato's *Phaedrus*", *Explorations in Ancient and Modern Philosophy*, vol.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49-252 등이 있다.

20 김윤동(2007), 「플라톤의 『파이드로스』 편에 나타난 영혼의 문제」, 『철학연구』 103, 대한철학회, p. 91-92는 육체적 욕망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에 상응하는 영혼의 욕망적 부분도 있어야 하며, 욕망을 가진 인간을 다스리기 위해서 신들의 영혼도 욕망 부분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육체적 욕망을 다스리는 영혼의 부분은 욕망적 부분이 아니라 이성적 부분이다. Gerson (1987), pp. 92-94는 육화되지 않은 영혼은 욕구 부분이 아니라 욕구 부분이 가질 만한 욕구에 대한 이차적 욕구를 가지며 이 이차적 욕구는 이성 부분에 속한다고 해석한다. 육화되지 않은 이성 부분이 세 종류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가 육화되었을 때 이 세 종류의 욕구들이 영혼의 세 부분이 된다는 것이다.

21 Burger (1980), p. 141, n. 3; Sheffield (2012), p. 222, n. 22.

더 나아가 『파이드로스』에서 마부와 두 말이 화를 내는 맥락과 화를 묘사하는 그리스어 단어도 기억할 만하다. 검은 말이 화를 내는 이유는 마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때 사용되는 단어는 *orgê*이다(254c7). *orgê*는 『국가』에서 기개 부분의 화를 나타낼 때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이다. 레온티오스의 예에서 욕구와 화가 대립한다고 할 때 *orgê*가 사용되고(440a6-7), 자신이 부정의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자각할 때는 처벌에 대해 화를 내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때 *orgizesthai*가 사용된다(440c). 마부와 흰 말이 화를 내는 이유는 자신들이 무섭고 불법적인 것으로 끌려간다는 생각에서이며, 이때 사용되는 단어는 *aganaktein*이다(254b1). 이 단어는 단순히 화를 나타내는 것보다 의미 범위가 넓어서, 불편함이나 언짢음 일반을 나타낼 수 있는 말이다. 『파이드로스』에서는 사랑하는 자가 아름다움의 유출물을 받아 날개의 깃털이 자랄 때 갖게 되는 통증을 나타내는 말로도 이 단어가 사용된다(251c3-5). 『국가』에서도 이 단어는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며, 『파이드로스』에서 마부와 흰 말이 끌려가는 것에 화를 낸 것과 유사하게, 동굴 밖으로 이끌려 나온 이가 끌려온 것에 대해 화를 낼 때 이 단어가 사용된다(516a1). 한마디로 말해서, 마부와 두 말이 화를 내는 상황과 그에 대한 묘사 중에서 『국가』의 기개 부분과 더 잘 어울리는 것은 검은 말이 화를 내는 상황이다.

흰 말과 검은 말을 각각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해 가장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불일치 요소 중에 필자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부와 검은 말은 항상 대립만 하는 것으로 이야기되며, 마부와 흰 말은 전혀 대립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된다는 점이다. 먼저 흰 말의 경우부터 살펴보자. 『파이드로스』에서는 마부와 흰 말의 대립에 대한 묘사가 전혀 없다. 그래서, 예컨대 헉포쓰(Hackforth)는 흰 말이 ‘명예를 사랑하는 자’와 ‘참된 믿음(혹은 평판)의 동료’로 불린다는 점에서 이것을 기개 부분으로 보아야 하겠지만, 소크라테스의 논의에서 이 규정들이 전혀 사용되지 않으며 마부와 흰 말이 목적과 기능이 같아서 거의 구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다.²² 그런데 흰 말에 관한 규정은 핵포쓰가 지적하는 내용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 흰 말의 규정에는 “채찍질이 필요 없이 명령과 이성만으로 몰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253d7-e1). 흰 말은 규정 자체가 마부와 대립하지 않음을 함축하는 것이다.²³ 이에 비해, 영혼의 각 부분이 서로 대립할 수 있다는 것은 『국가』에서 영혼의 부분을 나누는 근거로 사용된 것이다. 간혹 『국가』에서 기개 부분도 명령과 이성만으로 통제된다는 특성을 가진다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기개 부분의 특성이 아니라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의 영혼에서 기개 부분이 갖는 특성이다.²⁴ 기개 부분은 본래 화내는 부분이며, 화야말로 이성의 통제가 가장 어려운 감정이다. 두 말이 기개 부분과 욕구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갈레노스가 마부와 말들의 갈등을 논의하면서 이성과 분노의 갈등을 논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제 검은 말의 경우를 보자. 필자는 논문의 서두에서부터 검은 말에 ‘나쁘다’는 규정이 붙어 있음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 마부와 두 말을 『국가』의 영혼의 세 부분과 동일시하는 대부분의 연구자 중에서 검은 말의 나쁨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이는, 필자가 아는 한 옵드르잘렉(Obdrzalek)밖에 없는 것 같다. 옵드르잘렉은 욕구 부분이 통제될 수 있는 네 가지 가능한 방식으로 향상, 변형, 제거, 예측을 거론하고, 『국가』에서는 향상과 제거와 예

22 R. Hackforth (1952), *Plato's Phaedrus: Translated with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107. 필자는 마부와 흰 말의 목적과 기능이 같다는 핵포쓰의 진단에 동의하지 않으나,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명예를 사랑하는 자’라는 흰 말의 규정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논의할 것이다.

23 한 심사자는 에로스에 대한 논의에서 이성과 기개의 갈등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논의가 없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검은 말을 욕구 부분과 동일시하지 않는다면, 조금 전에 논의했던 검은 말이 화를 내는 것도 이성과 기개의 갈등 사례가 될 수 있다. 그 밖에도 I 부분에서 아레스를 따르는 이들의 행태에 대한 논의(252c)나 L 부분에서 명예를 사랑하는 삶의 방식에 대한 논의(256c-d)에서, 소크라테스가 원했다면 이성과 기개의 갈등에 관해 이야기할 만한 계기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었다.

24 이와 관련해서 정준영(2011), 「달래기 힘든 걱정, 그러나 고귀한 걱정」, 『철학사상』 41, pp. 211-254를 참고할 수 있다.

속이 고려되지만 『파이드로스』에서는 제거와 예측만이 가능한 선택지로 주어진다고 주장한다.²⁵ 교육을 통한 욕구 부분의 향상이 『국가』에서 주요한 목표인 것에 비해, 『파이드로스』에서 검은 말은 교육을 통한 향상의 대상이 아니다. J 부분에서 묘사되는 마부와 검은 말의 치열한 투쟁에서 검은 말은 최종적으로 공포에 의해 기가 죽는 것으로 그려진다. 읍드르잘렉이 이야기 하듯이, 더 이상적일 수 있는 검은 말의 제거는 가능하지 않고 결국 예측의 길만 남게 되는 것이다.²⁶ 그런데 읍드르잘렉은 검은 말이 통제될 수 있는 방식이 예측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욕구 부분에 대한 평가가 『국가』에서보다 더 낮아졌다고 해석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욕구 부분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는 것의 문제가 아니다. 영혼의 모든 부분이 서로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은 『국가』 전체의 주제인 정의의 가능 조건이다. 욕구 부분이 예측되지 않고는 통제될 수 없다면 정의로운 사람은 있을 수 없다. 그렇기에 『국가』 2-4권의 교육 프로그램은 영혼의 부분들이 예측됨 없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닦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흰 말을 기개 부분과 동일시하고 검은 말을 욕구 부분과

25 Suzanne Obdrzalek (2012), "Contemplation and Self-Mastery in Plato's *Phaedrus*", *Oxford Studies in Ancient Philosophy* 42, pp. 101-102. 『국가』에서 욕구 부분의 제거나 노예화 가능성도 고려된다는 읍드르잘렉의 주장은 부분적으로만 맞는 이야기이다. 지면 관찰상 자세한 논의를 할 수 없으나, 이와 관련한 간단한 언급 정도는 여기에서도 할 수 있겠다. 욕구 부분의 전적인 제거나 노예화 가능성은 『국가』에 등장하지 않지만, 욕구 부분 내의 일부 욕구들의 제거나 노예화 가능성은 『국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실 욕구 부분의 교육이 바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도 있다. 정의로운 인간에게서 불법적인 욕구들은 아마도 (가능한 한) 제거될 것이다. 과도정적인 인간에게서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나 불법적인 욕구는 노예화된다. 참주정적인 인간에게서는 거꾸로 필수적인 욕구가 제거되거나 노예화될 것이다. 필수적 욕구와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와 불법적인 욕구의 구별에 대해서는 강성훈(2024), pp. 353-360을 참조할 수 있다.

26 Obdrzalek (2012), p. 102. 읍드르잘렉은 욕구 부분이 통제될 수 있는 네 가지 방식 중 변형의 가능성은 플라톤이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알키노오스의 해석은 욕구 부분의 변형 가능성을 주장하는 해석이다. 헤르메리아스는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면서 욕구 부분이 제거된다고 해석하는 반면, 알키노오스는 욕구 부분이 자기화 부분으로 변형된다고 해석하는 셈이다.

동일시하지만, 사실 그들은 은연중에 훌륭한 기개 부분과 못한 욕구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런 동일시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말에게 부여된 규정들을 확인해 보자. 흰 말은 ‘소프로쉬네와 아이도스를 가지고 명예를 사랑하는 자(*timēs erastēs meta sōphrosunēs te kai aidous*)’이고 검은 말은 ‘휘브리스와 허세의 동료(*hubreōs kai alazoneias hetairos*)’이다(253d-e). 여기에서 ‘명예를 사랑하는 자’라는 규정이 흰 말을 기개 부분과 동일시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겠지만, 사실 『국가』에서 ‘명예를 사랑하는 부분’은 기개 부분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때 얻게 되는 규정이다.²⁷ 기개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 가지게 될 만한 가장 적합한 규정은 오히려 ‘휘브리스의 동료’이다. 그리스 신화에서 휘브리스 때문에 파탄을 맞이하는 인물들은 거의 예외 없이 기개 부분이 비대해져 있는 인물들이다. ‘휘브리스’가 일반적으로 ‘방종’보다 오히려 ‘오만’이나 ‘횡포’로 번역되는 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물론 『파이드로스』에서 ‘휘브리스’는 주로 과도한 쾌락의 추구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며, 그래서 필자도 본 논문에서 ‘방종’을 대표 번역어로 사용하고 있다. 연구자들이 ‘휘브리스의 동료’로 규정된 검은 말을 흔히 욕구 부분이라고 해석하는 이유도 그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욕구 부분이 과도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게도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했을 때이다.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의 욕구 부분은, (소프로쉬네를 절제의 계기로 이해하면) ‘소프로쉬네를 동반한다’(*meta sōphrosunēs*)는 표현과 오히려 더 잘 어울린다. 소프로쉬네를 가진 사람의 욕구 부분은 과도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에 대해 절제할 것이다.²⁸ 물론 『국가』에서 소프로쉬네는 영혼의 세

27 사람들이 분노 때문에 벌이는 온갖 추한 짓을 기억하라.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강성훈(2016), pp. 30-38을 참조할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욕구 부분이 ‘이득을 사랑하는 부분’이라고 규정되는 것은, 그것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때 불필요한 낭비를 피하고 유용한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28 중고등학교 교과서까지 포함해서 『국가』에 대한 대중적 소개서들은 흔히 플라톤에서 절제는 생산자의 덕목이자 욕구 부분의 덕목이라고 이야기한다. 물론 곧 이야기할 것처럼,

부분의 의견 일치(homodoxia)에 근거한다(442c-d)고 이야기되며, 기개 부분에도 ‘소프로쉬네를 동반한다’는 규정을 주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지만 『국가』에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질 때 소크라테스는 바로 쾌락과 욕구의 억제를 이야기하며(430e-431d), 소프로쉬네가 영혼의 여러 부분에 걸쳐 있는 것이라고 할 때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은 이성 부분과 욕구 부분이다. 『파이드로스』에서 소크라테스의 첫 번째 연설에서도 소프로쉬네가 언급되는데, 그 논의의 맥락은 좋은 것을 향한 이성적인 믿음과 즐거움을 향한 비이성적 욕구가 대립하는 상황이다(237d-e). 이런 논의들에서 다른 부분을 제쳐 두고 기개 부분에 특별히 ‘소프로쉬네를 동반한다’는 규정이 부여될 단서를 찾을 수 없다.

검은 말에 ‘허세의 동료’라는 다소 뜬금없는 규정이 붙어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일단 허세(alazoneia)가 욕구 부분과 특별히 연결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기개 부분이 제대로 양육되지 않았을 때의 특성과 어울린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²⁹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연설 중에서 검은 말이 허세를 부리는 내용은 전혀 없기에, 왜 소크라테스가 굳이 이런 규정을 덧붙이는지는 의아한 일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헥포쓰도 지적했듯이 흰 말에 ‘명예를 사랑하는 자’라는 규정이 있지만 이후 논의에서 흰 말이 명예를 추구하는 내용이 등장하지는 않는다.³⁰ 헥포쓰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약 플라톤이 흰 말을 기개 부분과 동일시할 의도가 있었다면, 그가 흰 말에 ‘명예를 사랑하는 자’라는 규정을 붙임으로써 그런 의도를 드러냈다고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검은 말에 ‘허세의 동료’라는 규정을 붙인 이유는 설명될 수 없다.

대중적 소개서들의 이러한 소개는 『국가』와 관련한 흔한 오해 중 하나이다. 하지만 소프로쉬네를 절제의 계기로만 이해하는 경우, 이러한 오해는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하다.

29 간단히 말해서, 제대로 양육되지 않은 사람의 기개 성향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이 휘브리스이고, 폭력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이 허세라고 할 수 있겠다.

30 Hackforth (1952), p. 107. White (1993), p. 91도 이 점을 지적한다.

그런데 명예 사랑은 기개 부분이 제대로 작동할 때의 특성이고 허세(와 휘브리스)는 기개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의 특성이라면, 거꾸로 플라톤이 양자 중 어느 쪽도 기개 부분과 동일시하지 않을 의도에서 이러한 규정들을 추가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우리는 앞에서 욕구 부분이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했을 때 휘브리스의 동료가 되며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의 욕구 부분에는 ‘소프로쉬네를 동반한다’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린다는 지적을 하였다. 플라톤에서 소프로쉬네와 아이도스가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³¹ 흰 말의 특성은 소프로쉬네와 명예 사랑으로 정리될 수 있으며 이것들은 욕구 부분과 기개 부분이 제대로 작동할 때의 대표적 특성들이다. 반면에 검은 말의 특성인 휘브리스와 허세는 욕구 부분과 기개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의 대표적 특성들이다. 플라톤은 독자가 흰 말과 검은 말을 각각 기개 부분과 욕구 부분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두 말에 이런 규정들을 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흰 말과 검은 말의 이러한 특성들에 대해서는 4장에서 더 논의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플라톤의 의도를 짐작할 단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셈이니, 4장의 논의에 앞서 플라톤의 의도를 짐작할 단서들로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자.

3.3. 플라톤의 의도를 짐작할 단서들

소크라테스의 두 번째 연설에는 논의의 전개 과정에서 일견 맥락에 잘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요소들이 있다. 검은 말을 ‘허세의 동료’라고 규정했던 것도 그러한 요소이다. 플라톤의 다른 대화편들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글이 유기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등장하는(264c) 『파이드로스』에 뭔가 맥락에 잘 어울리지 않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런 요소는 오히려

31 예컨대 『프로타고라스』 322c-323c에서 양자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등장한다.

려 독자에게 저자의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로 플라톤이 집어넣은 드라마적 장치일 가능성이 있다. 어떤 요소가 맥락에 어울리는지 자체가 맥락에 대한 해석에 어느 정도 의존하기 때문에, 사소한 것들은 제쳐 두기로 하자.³² 연설 전체의 논의 전개에 이질적인 요소가 등장하는 것은 윤희에 관해 설명하는 F 부분과 에로스의 방식들에 관해 이야기하는 I 부분과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의 삶의 방식에 대해 논의하는 L 부분이다.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가 지혜를 사랑하는 삶의 방식을 택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연설 전체의 논의 전개에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소크라테스가 이와 대비되는 삶의 방식으로 단순히 ‘더 속되고 지혜를 사랑하지 않는다’(phortikōterai te kai aphilosophoi, 256b7-c1) 삶의 방식을 이야기했다면 아무런 이질적 요소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그런 삶의 방식에 ‘그런데 명예를 사랑하는’(philotimoi de, 256c1)이라는 규정을 덧붙인다. 소크라테스는 왜 갑자기 명예를 사랑하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일까?³³ 명예에 대한 언급은 전체 연설 중 J 부분에서 흰 말에 관한 규정으로 등장한 것과 연설의 마지막 부분인 여기(L 부분)에 등장하는 것이 전부다. 그리고 막상 명예를 사랑하는 삶의 방식을 따를 때 활약(?)하는 이들은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의 검은 말들이다. 이들이 부주의를 틈타서 ‘대다수 사람이 복되다고 여기는 선택’(256c3-4)을 해내는 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검은 말에 ‘허세의 동료’라는 규정이 붙어 있는 것이 뜬금없다고 이야기했

32 한두 구절에 특이한 요소가 있는 것은 단순히 신화적 내러티브 상황에서 등장한 요소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 C 부분에서 헤스티아는 땅에 머물고 있거나 D 부분에서 신들의 말들이 암브로시아와 넥타르를 먹는다는 것[cf. Burnyeat (2012), pp. 254-255] 등이 그런 예이다. 검은 말을 ‘허세의 동료’로 규정한 것을 우리가 사소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 이유는, 이 규정은 검은 말의 ‘무엇임’을 나타내는 규정에 속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33 Harvey Yunis (2011), *Plato's Phaedru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66-167과 Hackforth (1952), p. 109 등에 이에 대한 간단한 논의가 있으나, 이들은 모두 명예를 사랑하는 삶의 방식이 지혜를 사랑하는 삶의 방식보다는 못하지만 방탕한 삶의 방식보다는 낫다는 정도의 언급을 할 따름이다.

데, 굳이 이야기하자면 대다수 사람이 복되다고 여기는 선택을 하는 행위가 ‘허세의 동료’라는 표현과 어울리는 것이겠다.

두 사람이 이후에 신의를 지켜 친구로 지내고 사후에 날개 달기를 간구하는 상태에서 육체를 벗어난다는 것은 명예를 사랑하는 삶의 방식을 따른다는 규정과 어울리는 일이다. 그런데 이런 논의에서 소크라테스는 흰 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다. 지혜를 사랑하는 삶의 방식과 명예를 사랑하는 삶의 방식의 대비는, 『국가』의 논의에 익숙한 독자에게 자연스럽게 『국가』의 영혼의 세 부분을 떠올리게 한다. 『국가』의 영혼 삼분설을 배경으로 이런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이성 부분, 기개 부분, 욕구 부분이 이 과정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졌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소크라테스는 『국가』의 영혼 삼분설을 떠올릴 만한 논의를 하지만, 흰 말과 검은 말이 기개 부분과 욕구 부분을 비유하는 것이었다면 기대하게 될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저자인 플라톤이 흰 말과 검은 말을 기개 부분과 욕구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게 하는 드라마적 장치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겠다.

I 부분에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각자 자신이 추종하는 신의 방식에 따라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등장한다. 이 이야기는 C 부분에서 11신을 필두로 하는 행렬을 이야기했던 것에 이어지는 것이고, 신과 닮게 됨이라는 연설의 중요한 주제와 연관된다. 여기에서 제우스를 추종하는자인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이 논의의 중심이 되고, 헤라와 아폴론을 추종하는 자의 사랑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언급되는 것은 전체 논의의 맥락과도 어울리는 일이다. 그런데 아레스를 추종하는 자의 사랑이 어느 정도 비중 있게 논의되는 것은 다소 이질적이며 그 내용은 더욱 이상하다. 아레스를 추종하는 자는 사랑받는 이에게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살기를 띠고(phonikos) 자신과 소년 애인을 제물로 바칠 태세가 된다는 것이다(252c4-7).

아레스를 추종하는 자는 L 부분에서 이야기된 ‘더 속되지만 명예를 사랑하는’ 삶의 방식을 따르는 자보다 더 속된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보인다. 명예를 사랑하는 삶의 방식을 따르는 자들이 성적 결합이 이루어진 후 서로 신의를 지키는 것에서 그들의 명예 사랑이 드러난다면, 아레스를 추종하는 자가 신의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보이는 모습은 분노로 인해 무슨 짓이든 해내는 사나운 기개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왜 아레스를 추종하는 자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대답을 찾기는 쉽지 않다.³⁴ 다만 『국가』의 영혼 삼분설 틀에서 보면 이 사람은 기개 부분이 주도하는 인물임이 너무나도 분명하며, 이 부분의 논의에서 두 말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은 두 말을 기개 부분과 욕구 부분으로 보지 말라는 신호 정도로 생각할 수는 있을 것이다.

사실, 인간의 영혼이 천계 밖의 ‘있는 것들’을 관조하는 방식이 다루어지는 E 부분부터 에로스의 방식들이 논의되는 I 부분까지는 말들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 여기에서 말들이 언급되는 유일한 부분은 인간의 영혼들이 말들의 소란 때문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E 부분뿐이며, 그곳에서도 두 말이 구별해서 언급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E 부분부터 I 부분까지의 논의에서, 아레스의 추종자에 대한 논의 외에도, 기개 부분과 욕구 부분을 언급해야 논의가 더 자연스러울 부분들이 없지는 않다. 마부와 두 말이 『국가』의 영혼의 세 부분이었다면, 그런 곳들에서 당연히 마부와 두 말의 상호작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대목에

34 어떤 방식으로든 사랑에 빠진 사람은 H 부분에서 언급된 ‘방종과 사귀며 본성에 어긋나게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251a)에 비하면 더 나은 사람이다. 뤼시아스의 연설이나 소크라테스의 첫 번째 연설에서는 이런 사람이 사랑에 빠진 사람으로 묘사되지만, 소크라테스의 두 번째 연설은 이런 사람은 아예 사랑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셈이다. L 부분의 논의는 사랑에 빠진 사람이 지혜 사랑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자와 명예 사랑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자로 양분되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 I 부분에 등장하는 아레스를 추종하는 사람의 예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종류가 이 두 부류로 환원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서 두 말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두 말이 기개 부분과 욕구 부분과 동일시되지 않는다는 정황 증거가 된다. 그런 성격이 가장 강한 부분은 윤회에 대한 논의(F 부분)에 등장하는 아홉 종류의 삶이다.

철학자에서 참주까지 아홉 종류 삶의 구분은 『파이드로스』에서 나름 유명한 부분이지만, 소크라테스의 두 번째 연설의 논의 전개에서는 가장 이질적인 부분이다. 소크라테스는 ‘있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에 따라 지상에서의 삶이 다른 형태를 띤다고 하며, 이런 이야기는 논의 전개상 충분히 나올 법한 이야기다. 그런데 왜 하필 아홉 종류의 삶을 이야기하는가? 또 아홉 종류의 삶의 순서는 어떻게 정해진 것인가? 소크라테스의 연설 자체에는 이와 관련한 아무런 단서가 없다.³⁵ 마지막에 참주가 오는 것 으로부터 많은 이들이 자연스럽게 『국가』를 떠올렸지만, 필자가 아는 한 브럼보(Brumbaugh)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이것을 『국가』에서 참주의 즐거움이 철학자 왕의 참된 즐거움으로부터 9배 떨어져 있다고 이야기된 것(587b-d)과 연관 짓지 못했다.³⁶ 『국가』에서 소크라테스는 왕 으로부터 과두정적 인간이 세 배 떨어져 있고, 과두정적 인간 으로부터 참주가 세 배 떨어져 있다고 이야기함으로써 9라는 숫자를 끌어낸다. 이것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³⁷

35 Hackforth (1952), pp. 83-84는 이 순서가 사회에서의 가치에 따른 순서일 것 같다는 정도의 이야기만 한다. Burger (1980), pp. 57-59는 이들을 아홉 무사 여신과 연결 짓지만, 연결의 적절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는다. Charles L. Griswold Jr. (1986), *Self-Knowledge in Plato's Phaedru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p. 102는 적절한 설명을 찾기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정도의 이야기만 한다.

36 Robert S. Brumbaugh (1951), "Teaching Plato's *Republic* X", *The Classical Journal* 46, pp. 345-346.

37 이 표에 대해서는 강성훈(2016), pp. 46-51을 참조하라.

	질서	멋대로 할 자유	폭압
이성	철학자 왕		
기개	명예정적 인간		
욕구	과두정적 인간	민주정적 인간	참주

『국가』의 논의로부터 만들어진 표를 참조해서, 표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약간 수정하면 『파이드로스』의 아홉 종류 삶에 대해서도 그럴듯한 추정을 할 수 있다.³⁸

	이성 지향	기개 지향	욕구 지향
이성 중심	1. 지혜를 사랑하는 자, 혹은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자	2. 법치를 하는 왕, 혹은 전쟁과 지휘를 잘하는 왕	3. 나라나 가정의 경영자, 혹은 사업가
기개 중심	4. 체육가, 혹은 몸을 치료하는 자	5. 예언가, 혹은 입교의식을 따르는 자	6. 시인, 혹은 모방에 관련된 자
욕구 중심	7. 장인, 혹은 농부	8. 소피스트, 혹은 대중 선동가	9. 참주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아홉 종류의 삶은 『국가』의 영혼 삼분설을 배경으로 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흰 말과 검은 말이 『파이드로스』에서 어떻게 묘사되었는지를 배경으로 해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가』에서는 영혼의 세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질서, 혹은 무질서를 이루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정의로운 정도가 결정되었다. 플라톤은 『파이드로스』에서 아홉 종류의 삶을 거론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육화되기 전에 ‘있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에 따라 영혼의 세 부분의 상호작용 방식이 결정된다는 것을 시사하면서, 동시에 독자에게 『파

38 Brumbaugh (1951), pp. 345-346에서 제시된 표는 배치 원리만 좀 다를 뿐 배치 자체는 이것과 같다. 브럼보가 제시하는 배치 원리의 소개와 비판, 필자가 제시하는 배치 원리의 설명과 정당화 등은 생략한다. 본 논문의 목적을 위해서는 이 분류가 영혼의 세 부분 사이의 상호작용에 근거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드로스』의 두 말을 『국가』의 기개 부분과 욕구 부분과 동일시하지 않을 단서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4. 『파이드로스』에서 흰 말과 검은 말

플라톤이 흰 말과 검은 말을 기개 부분과 욕구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도하지 않았다면, 그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논의의 맥락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소크라테스의 두 번째 연설이 첫 번째 연설을 교정하는 ‘다시 부르는 노래’인 만큼, 우선 두 번째 연설이 교정한다는 첫 번째 연설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정리해보자.

첫 번째 연설은 에로스가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부분(237b-238c)과 사랑하는 사람이 소년 애인에게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논의하는 부분(238d-241d)으로 나뉜다. 에로스가 무엇인지 규정하기 위해 먼저 소크라테스는 즐거움에 대한 욕구(epithumia)와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는 믿음(doxa)을 대비시킨다. 이 둘은 ‘각 사람의 안에 있으면서 다스리고 이끄는 두 형태(idea)’(237d6-7)이며, 양자는 어떤 때는 뜻을 같이하고 어떤 때는 반목한다(237d9-e1). 믿음이 이성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향해 영혼을 이끌 때 그 다스림의 이름이 분별(소프로쉬네)이고, 욕구가 비이성적으로 즐거움을 향해 영혼을 이끌 때 그 다스림의 이름이 방종(히브리스)이다. 이어서 소크라테스는 에로스가 여러 형태의 방종 중 하나로 ‘옳은 것을 추구하는 믿음을 비이성적으로 지배하며 아름다움의 즐거움 쪽으로 이끌리는 욕구’(238b7-c1)라고 규정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소년 애인에게 끼치는 해악에 대해 논의하면서는, 사랑하는 이가 사랑을 하는 동안에 끼치는 해악을 먼저 다양하게 논의한 후에(238e-240e), 사랑을 멈춘 후에도 그는 신의가 없다는 이야기를 추가한다(240e-241c). 이제 그는 자신 안에 다스리는 것이 에로스와 광기

(mania)에서 지성(nous)과 분별로 바뀌게 되어서, 지성 없는(anoëtos) 다스림의 시기에 했던 약속들을 승인하지 못하고 소년 애인을 피해 도망치게 된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첫 번째 연설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좋음의 추구하고 즐거움의 추구 사이의 대비이다. 좋음의 추구하고 즐거움의 추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는 어떤 의미에서 플라톤 철학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다. 첫 번째 연설에서는 이것을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는 이성적 믿음’과 ‘즐거움을 향한 비이성적 욕구’ 사이의 지배권 쟁탈전으로 묘사한다. 그런데 버니엣이 지적하듯이, 영혼의 내적 갈등을 좋음을 추구하는 믿음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욕구 사이의 대립으로 보는 것은 『프로타고라스』에서 소크라테스가 비판하는 대중들의 관점이다.³⁹ 『프로타고라스』에서 소크라테스는 대중들은 ‘가장 좋은 것을 알면서도 즐거움에 져서 그것들을 행하지 않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소크라테스의 논증은 복잡하지만 그의 논증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좋음의 추구하고 즐거움의 추구를 분리하지 않는 데 있다. 즐거움의 추구도 결국 좋음의 추구라면, 잘못된 행동은 좋음이나 즐거움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 무지의 소산이라는 것이다(352a-358d).

그런데 『프로타고라스』에서 제시된 소크라테스의 논증이 성공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많은 사람에게서 좋음의 추구하고 즐거움의 추구는 분리된 방식으로 드러난다. 『고르기아스』에서 소크라테스와 칼리클레스 사이의 대화는 좋음의 추구하고 즐거움의 추구가 분리된 방식으로 드러나는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 소크라테스는 이로운 즐거움과 해로운 즐거움을 구별하고(499b-d), 욕구 중에서 이로운 욕구, 즉 채워지면 사람을 더 낫게 만드는 욕구는 채우고 해로운 욕구, 즉 사람을 더 못하게 만드는 욕구는 채우지 않는 것이 참된 덕이라고 주장한다

39 Burnyeat (2012), p. 253.

(503c-d).

사실 애초에 좋음을 추구하는 믿음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욕구가 그 자체로는 적절한 대립 쌍이 아니다. 『프로타고라스』의 방식으로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적절한 믿음(계산술에 따른 믿음)과 부적절한 믿음(보이는 대로의 믿음) 사이의 대립으로 보거나,⁴⁰ 『고르기아스』의 방식으로 욕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로운 욕구와 해로운 욕구 사이의 대립으로 보아야 적절한 대립 쌍이 만들어질 것이다. 믿음과 욕구의 대립이 적절한 대립 쌍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방식은 영혼의 부분 같은 것이 있어서 믿음은 모두 한쪽 부분에 귀속시키고 욕구는 모두 다른 쪽 부분에 귀속시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첫 번째 연설에서 좋음을 추구하는 믿음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욕구를 ‘각 사람의 안에서 때로는 뜻을 같이하고 때로는 반목하며, 영혼을 다스리고 이끄는 두 형태(idea)’로 규정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런 규정은 플라톤에서 영혼의 부분들에 적용될 만한 것이다. 주석 10에서 이야기했듯이, 중간 시기 플라톤주의자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테르툴리아누스는 플라톤이 영혼을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고 보고하는데, ‘이성적 믿음’과 ‘비이성적 욕구’는 바로 이 두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⁴¹ 소크라테스의 첫 번째 연설에서 이야기되는 것은, 고대 플라톤주의자들로부터 유래했고 오늘날 플라톤에 대한 대중적인 인상을 특징짓는 이성과 욕망의 대비이다. 그리고 이것

40 물론 『프로타고라스』에서는 ‘적절한 믿음’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고 ‘앎’이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하지만 『프로타고라스』에서 소크라테스는 (『국가』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앎과 믿음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358c-e), ‘앎’ 대신 ‘적절한 믿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해서 소크라테스의 생각이 잘못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41 주석 10에서 우리는 또한 고대에는 ‘영혼의 부분’(meros)과 ‘영혼의 능력의 종류’(eidōs)가 구분되지 않고 논의되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국가』에서도 영혼의 부분을 나누는 논의는 436a부터 시작되지만 ‘meros’라는 표현은 442b에 처음 등장하며, 그 이전에는 영혼의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eidōs’가 사용되었고(439e, 440e 등), 그 이후에도 영혼의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meros’만이 아니라 ‘eidōs’가 계속 사용된다(504a, 572a, 580d, 590c 등). 그리고 플라톤에서 ‘eidōs’와 ‘idea’는 많은 경우 교환가능한 말로 쓰인다.

이 바로 ‘다시 부르는 노래’인 두 번째 연설이 교정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연설에서 소크라테스는 A 부분에서 영혼 불사 증명을 하고, B 부분에서는 이제 영혼의 형태(idea)에 관해 이야기해야 한다면 영혼을 ‘한 명에 매인 날개 달린 말들과 마부가 결합된 능력’에 비유한다. A 부분의 증명이 영혼이 자기 운동자라는 규정에 근거했으며, 이러한 규정이 제시되고 곧바로 마부와 말들의 비유가 등장한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마부와 말들의 비유를, 운동을 제어하는 요소와 운동에 추동력을 제공하는 요소에 대한 비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첫 번째 연설에서 좋은 것을 추구하는 믿음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욕구가 우리 각자 안에서 ‘다스리고 이끄는 두 형태’(duo idea arkhonte kai agonte)라고 했다면, 두 번째 연설에서는 영혼의 형태(idea)가 ‘다스리는’ 마부와 ‘이끄는’ 말들의 결합물을 닮았다고 이야기하는 셈이다. 마부와 말들의 비유는 한편으로 신들이 마차를 타고 다니는 것으로 묘사되었던 신화적 배경을 갖는 것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운동자를 운동 제어 부분과 추동력 제공 부분의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신들에게서 추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키잡이인 지성(nous), 혹은 지성에 의해 양육되는 신의 사유(dianoia)가 하는 일은 ‘참으로 있는 것들’의 관조이다(D 부분). 신들의 영혼도 자기 운동자인 한에서 관조의 능력 외에 추동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⁴²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인간의 영혼에 대해 다루는 E 부분부터 I 부분까지의 논의에는 말들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 여기에서의 논의는 기본적으로 전체로서의 영혼에 대한 것이지만, 이 부분 논의에서 중요한 관조의 주체는 영혼의 키잡이에 해당하는 마부이다. 마부가 참으로 있는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관조했고, 또 어떤 방식으로 관조한 것을 상기하

42 Gerson (1987), pp. 91-92는 모든 영혼이 영혼 없는 것 전체를 돌본다는 구절(246b6)에 근거해서 신들의 영혼도 관조의 능력 외에 다른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는지에 따라, 지상에서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영위하게 되며 또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하게 되는지가 결정되는 것이다. 인간의 영혼에서도 마부는 관조의 능력인 지성, 혹은 ‘적합한 것을 받아들이는 데 관심이 있는 모든 영혼의’(247d1-2) 사유(dianoia) 능력이다. 그리고 육화된 영혼이든 육화되지 않은 영혼이든, 인간의 영혼도 자기 운동자인 한에서 관조, 혹은 사유의 능력 외에 추동력을 가져야 한다.

마부가 운동을 다스리는 자이고 말들은 운동을 이끄는 추동력이며, 인간의 경우 좋은 말과 나쁜 말, 즉 좋은 추동력과 나쁜 추동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비유는 첫 번째 연설에서 좋음을 추구하는 믿음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서 다스리고 이끄는 두 형태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흥미로운 방식으로 대치하는 것이다. 우선 즐거움의 추구로서의 욕구가 무조건 나쁜 추동력으로 이해될 필요가 없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욕구도 『고르기아스』에서처럼 이로운 욕구와 해로운 욕구의 구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좋음을 추구하는 믿음도 무조건 좋은 추동력인 것은 아니다. 좋음을 추구하는 믿음도 추동력인 한에서 『프로타고라스』에서처럼 적절한 믿음으로서의 추동력과 부적절한 믿음으로서의 추동력의 구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⁴³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추동력과 독립적인 지성, 혹은 사유의 능력이다.

영혼의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없는 초기 대화편들에서는 갈등의 양상이 상대적으로 단순하게 고려되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든 욕구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든 큰 상관이 없었다. 결국에는, ‘실제로 좋은

43 G. R. F. Ferrari (1987), *Listening to the Cicadas: A Study of Plato's Phaedru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85-189 등이 지적하듯이, 검은 말의 인지적 능력은 『국가』의 욕구 부분보다 훨씬 풍부하다. 우리는 3.2절에서 검은 말이 분노하는 장면에 대해 논의했는데, 검은 말은 단순히 분노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검은 말은 마부와 흰 말에게 대오를 지키지 못한 겁쟁이라는 비난을 하면서, 약속을 깨뜨린 것을 질책한다(254c7-d1). 페라리가 지적하듯이, 이 순간의 검은 말은 사기가 약한 군대를 독려하는 지휘관의 모습을 하고 있다.

것'을 향하는 동기가 있고 '단순히 좋아 보이는 것'(실제로는 좋지 않으면서 좋아 보이는 것)을 향하는 동기가 있으며, 영혼 안에서 양자가 갈등하는 모델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영혼의 부분들이 도입된 중기 이후의 대화편들에서는 갈등의 양상이 복잡해진다. 일단 영혼의 부분 각각에서 그 부분이 갖는 동기가 어느 쪽을 향하는지와 관련한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서로 다른 방향의 동기를 갖는 영혼의 부분들이 생기면, 그 부분들 사이에서의 갈등도 있을 수 있다.

『국가』에서는 '실제로 좋은 것'과 '단순히 좋아 보이는 것'을 구별해 내는 임무가 이성 부분에 부여되고, 이성 부분이 다스리는 삶이 좋은 삶이고 기개 부분이나 욕구 부분이 다스리는 삶은 좋지 않은 삶이라는 주장이 제시된다. 그런데 이 둘을 결합하면, 이성 부분의 욕구는 실제로 좋은 욕구이고 기개 부분이나 욕구 부분의 욕구는 단순히 좋아 보이는 욕구라는 오해를 하기 쉽다. 소크라테스의 진의는, 이성 부분이 다스릴 때 영혼의 각 부분의 욕구가 실제로 좋은 욕구이고, 이성 부분이 다스리지 않을 때 영혼의 각 부분의 욕구가 단순히 좋아 보이는 욕구라는 것이다. 이성 부분이 다스리지 않는 영혼도 이성 부분을 갖지 않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좋은 것'과 '단순히 좋아 보이는 것'을 구별하는 임무가 이성 부분에 주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다. 영혼의 다른 부분이 다스릴 때는 이성 부분이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 내지 못하는 것일 따름이다.⁴⁴ 오해의 발단은 이성 부분에서 사유 능력과 동기 제공 능력이 중첩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이성 부분은 '실제로 좋은 것'과 '단순히 좋아 보이는 것'을 구별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바로 그 구별 작업의 결과 (구별을 제대로 해서) '실제로 좋은 것'을

44 이성 부분이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가장 명시적인 언급은 과두정적 인간에서 이성 부분이 어떻게 하면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일에만 몰두한다(553d)는 대목에서 볼 수 있다. 과두정적 인간의 이성 부분은 명예를 얻는 것 등이 돈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좋아 보이는 것'일 뿐 '실제로 좋은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다(555a).

향한 동기를 가질 수도 있고 (구별을 잘못해서) ‘단순히 좋아 보이는 것’을 향한 동기를 가질 수도 있다.

마부와 두 말의 비유는 이런 오해를 극복할 수 있는 모델이 된다. ‘소프로쉬네와 아이도스를 가지고 명예를 사랑하는 자’로 규정되는 흰 말은 ‘실제로 좋은 것’을 향한 동기를 만들어 내는 성향을 비유하고, ‘휘브리스와 허세의 동료’로 규정되는 검은 말은 ‘단순히 좋아 보이는 것’을 향한 동기를 만들어 내는 성향을 비유한다. 우리는 3.2절에서 이미 기개 부분과 욕구 부분이 제대로 작동할 때 흰 말의 특성을 가지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검은 말의 특성을 갖는다고 이야기했다. 이제 이성 부분도, 그것의 동기 제공 능력의 측면에서 볼 때, 제대로 작동할 때 흰 말의 특성을 가지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검은 말의 특성을 갖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혼의 어느 부분에 속한 것인지를 막론하고, 동기 중에서 아이도스 성향의 동기들은 흰 말에 귀속시키고⁴⁵ 휘브리스 성향의 동기들은 검은 말에 귀속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사유 능력 측면에서 볼 때의 이성 부분이 바로 마부가 비유하는 것이다.⁴⁶ 기본적으로 이야기해서, 마부가 ‘참으로 있

45 ‘소프로쉬네와 아이도스를 갖추고 명예를 사랑하는 자’라는 규정을 우리는 아이도스적 성향으로 정리하고 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소프로쉬네와 아이도스는 플라톤에서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아이도스가 명예 사랑을 함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Douglas Cairns (1993), *Aidōs: The Psychology and Ethics of Honour and Shame in Ancient Greek Litera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를 참조할 수 있다.

46 마부와 말들이 모두 욕구를 갖는다는 해석이 많지만, 그런 해석은 텍스트 전거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애초에 이 비유의 취지 자체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텍스트 전거로 흔히 제시되는 구절은 영혼이 진리의 평원을 보고자 하는 대단한 열의(spoudē)를 갖는다는 구절(248b)과 마부가 두 말의 고삐들을 뒤로 세게 당긴다는 구절(254b-c) 등이다. 그런데 일단 이런 구절들은 주 32에서 언급했던 것과 비슷하게 신화적 내러티브 상황에서 등장한 요소 정도로 생각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아 보인다. 다만 이 문제는 큰 틀에서 볼 때 플라톤에서 이성 부분(to logistikon)과 지성(nous)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라는 복잡한 문제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파이돈』, 『국가』 6-7권, 『티마이오스』, 『법률』 등의 대화편을 함께 다루어야 하기에, 이것은 다른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다.

는 것들’을 관조하면 영혼은 지성을 갖추고 아이도스 성향이 힘을 얻게 되며, 관조에 실패하면 지성을 갖추지 못하고 휘브리스 성향이 힘을 얻게 된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인간의 영혼인 한에서 아이도스 성향과 휘브리스 성향은 공존하며, 심지어 육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휘브리스 성향이 제거되지는 않는다.

5. 『파이드로스』에서 에로스: 결론을 대신하여

지금까지 우리는 마부와 두 말을 이성 부분, 기개 부분, 욕구 부분과 동일시하는 오래된 해석의 전통이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았다. 우리의 해석이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면, 마부는 지성, 혹은 사유의 능력을 상징하고 흰 말과 검은 말은 각각 (영혼의 모든 부분에 걸친) 아이도스 성향과 휘브리스 성향을 상징한다. 그런데 애초에 마부와 두 말의 비유는 에로스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다. 지면 관계상 논의할 수 없었지만, 우리의 해석은 『파이드로스』의 에로스 에 대한 논의가 갖는 풍부한 함축을 더 잘 음미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이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논문이 필요하겠지만, 본 논문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만 짚어보기로 하자.

흰 말과 검은 말이 각각 아이도스 성향과 휘브리스 성향으로 규정되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이면, 『파이드로스』에서 에로스가 아이도스와 휘브리스의 기묘한 상호작용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수 있다. 전체로서의 영혼이 사랑에 빠지는 과정을 묘사한 H 부분을 먼저 보자. 입교의식의 기억이 생성한 자(*artitelēs*)가 아름다운 소년을 보고 처음 갖는 경험은 두려움과 신을 대하는 것과 같은 경외감이다(251a). 그리고 이것은 전형적인 아이도스의 경험이다. 그다음에 그가 눈을 통해 아름다움의 유출물을 받아들이면 날개가 돋아나면서 통증과 환희가 뒤섞인 경험을 한다(251b-e).

소크라테스는 두 말의 특성을 규정한 J 부분에서 이 상황을 다시 묘사한다. 처음 아름다운 소년을 보고 영혼을 달구는 것은 마부였던 것으로 묘사된다. 이때 흰 말은 아이도스의 제재 때문에 자제하지만, 검은 말은 성애의 기쁨을 상기시키며 소년에게 다가가려 한다(253e-254a). 마부와 흰 말이 소년에게 다가가는 행위를 무섭고 불법적인 것(*deina kai paranoma*)으로 여기는 것을 보면, 검은 말은 소년을 범하려는 휘브리스적 욕구를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양편의 싸움이 지속되다가 결국 검은 말을 따르기로 하지만, 소년에게 가까이 가서는 마부의 기억이 아름다움의 본성이 분별과 함께 있던 것을 상기하고는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고삐를 강하게 당긴다(254b). 이때부터 아이도스와 휘브리스의 격렬한 싸움이 묘사된다(254c-e). 결국 검은 말이 공포 때문에 휘브리스를 멈추고, 사랑하는 자의 영혼이 아이도스를 가지고 두려워하며 소년을 따른다(254e-255a).

사랑하는 자가 이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는 두 말의 규정 이전에 전체로서의 영혼을 묘사했던 H 부분에서 이루어진다. 이제 그는 사랑받는 자와 함께 있으려 하면서, 어머니와 형제와 벗들 모두를 잊고 기존의 규범들과 몸가짐을 하찮게 여긴다(252a). 이것은 여기에서 신들린 광기로 묘사되지만, 그리스적 맥락에서 볼 때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는 휘브리스적 태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I 부분에서는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는 자를 마치 신이라도 되는 듯이 높이고 경배할 목적으로 일종의 신상(*agalma*)을 만들고 꾸민다고 이야기된다(252d). 그다음에 그는 사랑받는 자를 신과 닮게 만들려고 온갖 애를 쓰고, 그 과정에서 그 자신도 신과 닮게 되고 사랑받는 자도 신과 닮게 만든다(252e-253c). 마지막 부분이 미묘하다. 신처럼 높이고 경배하는 것은 아이도스적 태도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신이 아닌 자를 신처럼 대하는 것은 또 휘브리스적 태도라고 할 수도 있다. 더구나 스스로가 신과 닮으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적 맥락에서는 휘브리스의 극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리스 신화에는 인간이 신과 대등하게 되려고 하다가 파탄에 이르는

이야기가 가득하다. 휘브리스는 기본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한계, 혹은 경계를 넘어서려는 욕구이다. 그래서 휘브리스를 부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스 전통에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분별(소프로쉬네)의 지침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여서 신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라는 명령이었다. ‘신과 닮게 됨’이라는 플라톤적 이상은 애초에 그리스적 전통에서는 휘브리스이다.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도 신과 마찬가지로 불사임을 논증함으로써 그리스적 대전제를 부정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두 번째 연설을 마치는 K 부분에서 소크라테스는 뤼시아스의 연설과 자신의 첫 번째 연설에서 칭송되었던 분별이 ‘사멸하는 분별’(sōphrosunē thnētē)이라고 이야기한다(256e).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멸하는 분별이다. 나의 사멸적 본성에만 주목하는 자는 진정으로 자신을 아는 자가 아니다. 지성, 혹은 사유의 능력인 마부는 에로스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애초에 신과 닮은 존재였음을 기억해 낸다. 그때 비로소 내가 진정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이러한 진정한 분별이 나에게 상승적 욕구를 만들어 낸다.

진정한 자아 찾기의 출발점이 검은 말의 휘브리스로 묘사되는 것은 흥미롭다. 인간적 경계로 나를 둘러싸고 있던 자는 경계 넘기와 경계 지키기를 반복하다가, 인간적 경계가 나에게 주어진 진정한 경계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경계를 넘어서는 것은 미친 것이다(mania). 그런데 그 미친 것이 온전히 휘브리스에 의해서만 발동된다면 인간적 광기로 끝나겠지만, 휘브리스와 아이도스의 상호작용에 의해 상승의 힘이 된다면 그것은 신적 광기이고 소크라테스는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라고 이야기한다.

참고문헌

원전 텍스트

- Alcinoos: Enseignement des doctrines de Platon* (1990), Ed. by John Whittaker, Paris: Les Belles Lettres.
- Aristotelis De Anima* (1956), Ed. by W. D. Ros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alen De Placitis Hippocraitis et Platonis* (2005), Ed. by Phillip de Lacy, Berlin: Akademie Verlag.
- Hermias Alexandrianus: In Platonis Phaedrum scholia* (2012), Ed. by Carlo M. Lucarini and Claudio Moreschini, Berlin: De Gruyter.
- Platonis Opera*, 5 vols. (1900, 1901, 1902, 1903, 1907), Ed. by John Burne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latonis Respublica* (2003), Ed. by S. R. Sling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lotini Opera*, 3 vols. (1951, 1959, 1973), Ed. by Paul Henry and Hans-Rudolf Schwyzer, Leiden: Brill.
- Plutarchi Moralia*, vol. 6.1, (1954), Ed. by C. Hubert, Leipzig: Teubner.
- Quinti Septimi Florentis Tertulliani De Anima* (2010), Ed. by J. H. Waszink, Leiden: Brill.

번역 및 이차문헌

- 강성훈(2024), 「플라톤과 욕망의 다면성」, 『욕망에 대하여』(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엮음), 사회평론아카데미, pp. 339-370.
- 강성훈(2016), 「플라톤의 『국가』에서 세 종류의 사람들과 영혼의 세 부분」, 『서양고전학연구』 55-2, pp. 29-56.
- 강성훈(2013), 「플라톤의 영혼론」, 『서양고대철학 1』(강철웅 외), 도서출판 길, pp. 341-365.
- 강성훈(2005), 「『국가』 4권에서 영혼의 세 부분」, 『서양고전학연구』 23, pp. 29-69.
- 김영균(2021), 「플라톤의 『파이드로스』 편에서 자기 인식과 혼의 이분」, 『동서철학연구』 102, pp. 195-215.
- 김영균(2004), 「『국가』 편에서 혼의 조화와 이성의 지배에 대한 플라톤의 견해」, 『철학』 79, pp. 81-105.
- 김유석 역(2025). 『고대의 플라톤주의자들 1, 알비노스·알키노오스: 플라톤 철학 서설, 플라톤 사상 강의』, 파주: 아카넷.
- 김윤동(2007), 「플라톤의 『파이드로스』 편에 나타난 영혼의 문제」, 『철학연구』 103, 대한철학회, pp. 77-93.
- 김주일 역(2020), 『플라톤: 파이드로스』, 파주: 아카넷.
- 정준영(2011), 「달래기 힘든 걱정, 그러나 고귀한 걱정」, 『철학사상』 41, pp. 211-254.

- 조대호(2012), 「플라톤 철학에서 기억과 영혼」, 『범한철학』 66, pp. 51-85.
- Baltzly, Dirk & Michael Share (Trs.) (2023), *Hermias on Plato Phaedrus 245E-257C*, London: Bloomsbury Academic.
- Baltzly, Dirk & Michael Share (Trs.) (2019), *Hermias on Plato Phaedrus 227A-245E*, London: Bloomsbury Academic.
- Belfiore, Elizabeth S. (2006), "Dancing with the Gods: The Myths of the Chariot in Plato's *Phaedrus*", *American Journal of Philology* 127(2), pp. 185-217.
- Boys-Stones, George (2018). *Platonist Philosophy 80 BC to AD 25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umbaugh, Robert S. (1951), "Teaching Plato's *Republic X*", *The Classical Journal* 46, pp. 345-348.
- Burger, Ronna (1980), *Plato's Phaedrus: A Defense of a Philosophic Art of Writing*, Alabama: University of Alabama Press.
- Burnyeat, Myles (2012), "The Passion of Reason in Plato's *Phaedrus*", *Explorations in Ancient and Modern Philosophy*, vol.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38-258.
- Cairns, Douglas (1993), *Aidōs: The Psychology and Ethics of Honour and Shame in Ancient Greek Litera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ooper, John (1984), "Plato's Theory of Human Motivation", *Reason and Emotion* (ed. by John Cooper, 1999), pp. 118-137.
- Fan, Li (2016), *Love and Madness in Plato's Phaedrus*, University of St. Andrews Ph.D Thesis.
- Ferrari, G. R. F. (1987), *Listening to the Cicadas: A Study of Plato's Phaedru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erson, Lloyd (1987), "A Note on Tripartition and Immortality in Plato", *Apeiron* 20, pp. 81-96.
- Griswold, Charles L. Jr. (1986), *Self-Knowledge in Plato's Phaedru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Hackforth, R. (1952), *Plato's Phaedrus: Translated with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hn, Charles H. (1987), "Plato's Theory of Desire", *Review of Metaphysics* 41, pp. 77-103.
- Lorenz, Hendrik (2006), *The Brute Withi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iller, Fred D., Jr. (2009), "The Platonic Soul", *A Companion to Plato* (Ed. by Hugh H. Benson), West Sussex: Wiley-Blackwell, pp. 278-293.
- Nussbaum, Martha C. (1986), *The Fragility of Goodness: Luck and Ethics in Greek Tragedy and Philosoph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bdrzalek, Suzanne (2012), "Contemplation and Self-Mastery in Plato's *Phaedrus*".

Oxford Studies in Ancient Philosophy 42, pp. 77–107.

Price, A. W. (1989), *Love and Friendship in Plato and Aristotle*, Oxford: Clarendon Press.

Sheffield, Frisbee (2012), “*Erōs* before and after Tripartition”, *Plato and the Divided Self*

(Ed. by Rachel Barney, Tad Brennan, and Charles Britta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12–237.

Yunis, Harvey (2011), *Plato's Phaedru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White, David A. (1993), *Rhetoric and Reality in Plato's Phaedrus*, Albany: SUNY Press.

Zaborowski, Robert (2018), “Plato's *Phaedrus* 253e5 – 255a1 Revisited: A Reappraisal of Plato's View on the Soul”, *Organon* 50, pp. 165–207.

원고 접수일: 2025년 7월 14일, 심사완료일: 2025년 8월 3일, 게재 확정일: 2025년 8월 19일

ABSTRACT

The White Horse and the Black Horse in the *Phaedrus*

Kang, Sung-Hoon*

The allegory of the charioteer, the white horse, and the black horse in the *Phaedrus* has traditionally been regarded as representing the rational, the spirited, and the appetitive parts of the soul in the *Republic*. This tradition originates with ancient Platonists, who interpreted Plato fundamentally within a framework that contrasted reason and desire. The identification of the charioteer and the two horses with the three parts of the soul also arose from this interpretive framework. However, if we pay attention to the specific details presented in the text, there are more discrepancies than similarities between the tripartite theory of the soul and the allegory of the charioteer and the two horses. Moreover, there are quite a few indicators suggesting that Plato did not intend to identify the two. In order to understand what Plato intended to express with the allegory of the charioteer and the two horses, we should note that this allegory appears in Socrates' second speech, which is a "palinode" that corrects his first speech. The first speech actually presents a direct contrast between reason and desire, and the allegory of the charioteer and the two horses is meant to replace that contrast. Both reason and desire are capable of producing either proper or improper motivations: the white horse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Philoso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represents the disposition of *aidōs*, which produces proper motivations, while the black horse represents the disposition of *hubris*, which produces improper motivations.

Keywords White Horse, Black Horse, Internal Conflict, Aidōs, Hubris

